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포스트휴먼 경계학: 사라지는 인간, 드러나는 비인간
이동신

2026년 4월 20일 저녁 7:30~9:3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 경계와 '악의 평범성'
- 인간의 역사와 비인간 존재
- '유사의 본질'과 분류학
-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사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종종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는다. 영화의 주인공은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아우슈비츠 책임자이지만, 그의 삶은 대체로 평범하다. 모든 평범한 장면이 담벼락 너머의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는 이를 섬뜩하게 한다. '경계의 편재성'이라는 말로 영화를 묘사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체로' 평범한 주인공과 그의 가족의 삶 중간중간에 전혀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섬뜩한 무언가가 빠져나오듯이, 절대적인 듯 보이는 담벼락과 경계는 이미 어디선가 뚫려 있다. 처음부터 등장하는 개 한 마리, 주인공의 아내가 입어보는 밉코트, 집안일하는 여러 유대인들은 아마도 매일 담벼락을 왔다 갔다 한다. 이들은 그저 비인간처럼 다루어졌던 존재다. 자신을 우월한 인간이라고 분류한 이들이 세운 경계는, 자신들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존재와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경계는, 비인간 존재로 쉴 새 없이 뚫린다.

홀로코스트와 비인간 존재. 같이 얘기할 만하지만, 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J. M. 쿣시는 자신의 분신 같은 인물인 코스텔로를 통해 이야기한다. 코스텔로는 홀로코스트에는 것처럼 윤리적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지금, 이 순간 가해지는 또 다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 인물이 홀로코스트와 동물 도축의 비유에 대한 강한 반발로 코스텔로가 "유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의 바탕에는 인간과 동물이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그 관계는 위에서 아래로만 가능한 위계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은 원본과 재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푸코가 "재현의 시대"라고 설명한 고전주의 시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푸코는 18세기 말부터 고전주의 시대가 끝나고, 근(현)대 시대가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인간”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푸코는 20세기 후반에 예측한다.

실제로 인간의 사라짐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1962)으로 시작한 환경운동이나,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1976)으로 촉발된 동물권 운동은 자연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 끝나 간다고 알리고 있다. 한편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1948)에서 암시된 인간과 기계의 교류 가능성은 컴퓨터 과학과 정보화 시대의 활성화로 소위 디지털 문명을 창출했고, 이 문명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삶은 급진적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로 대표되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인간 정체성을 꾸준히 해체해 왔다. 캐서린 헤일스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1999) 이후에,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 특히 ‘인간의 사라짐’을 다루는 논의는 점차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제목 아래 모였다. 헤일스, 캐리 울프, 그레이엄 하먼을 비롯한 다수의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들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위계질서를 일종의 “평평한 존재론”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 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간의 유사함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유대인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비교 가능하며, 따라서 코스텔로가 느끼는 윤리적 고뇌는 홀로 코스트로 인한 인류의 고뇌에 비할 만한 것이 된다.

유사함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말은 경계에 틈이 있다는 뜻이다. 비인간 존재는 분류법의 대상인 동시에 분류법과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려 왔다. 이미 경계를 오가는 비인간 존재들을 따라다니며 경계가 보기보다 틈이 많고 두터운 곳을 깨닫게 하는, 이른바 ‘포스트휴먼 경계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계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만들고, 키우고, 복잡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자크 데리다는 ‘경계학’(limitrophy)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분류법을 해체하고 만들고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일종의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그의 용어의 접미사를 고쳐 ‘limitography’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동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미국소설, SF, 포스트휴머니즘 등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최근에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 동물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2022), 『SF, 시대정신이 되다』(2022), 『다르게 함께 살기: 인간과 동물』(2021) 등을 썼고, 『기이한 실재론』(2025), 『러브크래프트 걸작선』(2024), 『점원』(2023), 『갈라테아 2.2』(2020) 등을 번역했다.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Visual Showcase
나만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QR코드로 참여 가능)

교육 뉴스레터
Studio DAC POST



(지난 뉴스레터 보기,
무료 구독하기)